1920년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에 관한 논고

이 형 진*

– 목 차 –

Ⅰ. 서론
Ⅱ. 민중 담론의 형성 과정: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적 지반
Ⅲ. 신경향파 탄생의 근저: 문단 기획과 생명주의
Ⅳ. 사멸된 반항의 언어, 부활한 계몽의 문법
Ⅴ.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아나키즘이라는 당대의 사상적 지반을 통해 신경향파 문학의 탄생, 지양, 지양의 효과 등을 논구하였다. 우선 1920년대에 확산된 민중 담론이 문학장에 침투하여 민중예술론을 형성한 경과를 살펴보았다. 민중예술론은 오스기 사카에의 아나키즘과 생명주의를 매개로 식민지 조선에 유입되었다. 민중예술론, 아나키즘, 생명주의 등은 신경향파 문학 탄생의 사상적 지반으로 작용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에서 재현되는 자아의 확충과 완성, 생명력, 반역정신 등은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과 일치한다. 또한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은 카프에서 부정한 자연생장성과 반항의식, 민중의 자기표현을 문학의 강한 동력으로 삼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카프에 의해 지양된다. 이러한 민중 중심의 담론들이 사라지면서 문학장에는 민중의 언어와 반역정신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표지화하고 민중의 지도자적 위치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계몽주의의 언어만 남게 되었다. '예술의 주인은 민중'을 존재론적 근간으로 삼는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은 민중의 존재와 언어에 대해 변형을 요구하지 않고 민중의 존재성을 역능으로 긍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시간강사(multitude21@naver.com)

주제어 : 신경향파 문학, 아나키즘, 오스기 사카에, 민중예술론, 자아, 생명주의, 반역정신, 민중, 개조론

Ⅰ. 서론

1920년대는 식민지 조선을 관류하던 각종 담론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을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조론과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 담론은 계급으로 기존의 민족주의적 호명기제를 대체하고 민중의 평등, 자유, 계급에 대한 문제를 전면화하였다.[1] 1920년대 담론의 전환이란 개조론과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민중을 조명하고 민중이 처한 현실적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의 출현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환은 조선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근대화 · 자본주의화를 극복하려고 하는 세계사적 동시성으로 요청된 것이다.

세계사적 동시성이란 1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국제 관계 등에 대한 재편을 주창하는 개조론의 등장과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상으로써 사회주의가 요청된 것을 의미한다. 개조론과 사회주의 담론으로의 전환은 일본 · 중국 · 식민지 조선 등에서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담론 전환은 문학장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0년대 초 문학은 지식인의 내면과 관념 위주로 점철된 동인지 문학을 지양하고 민중과 민중의 현실 생활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 탄생한 것이 신경향파 문학이었다. 신경향파 문학의 탄생에 있어서 개조론과 사회주의 담론의 영향이 지대했으리라 추측된다.

---

1) 당대 지식인들은 개조론, 사회주의, 민족주의, 대동사상 등을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으로 주목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실력과 힘이 지배하는 국제적 질서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체 무력에 의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이 함의하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대동사상은 인간 · 국제 관계의 평등과 반제국주의적 정치성을 표방했음에도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을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29~80쪽 참조.)

1920년대 개조론은 조선 지식인들의 보편적 구호였으며, 사회주의는 동아시아 각국이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자 실천적 거점이었다. 1920년대 초 조선 지식인들은 아나키즘과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대체로 아나키즘의 언어로 사회주의 운동을 선전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초 사회주의의 주류는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나키즘은 사상적 입장의 간극을 떠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었고, 사회사상과 근대문학의 지형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사상적 기저로 작동하였다.[2] 즉 아나키즘은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등 입장의 편차를 떠나 1920년대 문화운동의 중요한 지반이었음을 말한다.

근대문학의 전개에 있어서 "초창기 근대문인들의 사상적 거점이 상당부분 아나키즘을 포회"[3]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아나키즘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본격적 프로문학의 과도기 단계로 규정된 신경향파 문학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4] 다시 말하자면 신경향파 문학의 형성 및 전개에 있어서 아나키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향파 문학은 민중의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면모를 민중 해방의 언어로 조명한 아나키즘이 지배적으로 관류하던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신경향파'라는 용어를 창안한 당대 카프 문인들도 아나키즘의 언어로 프로문학의 이론적 토대를 정초했고 제1차 방향전환 이전까지 아나키즘과 공산주의의 언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창작활동을 하였다. 권구현 · 김기진 · 김화산 · 이기영 · 이익상 · 이상화 · 이향 · 임화 · 조명희 · 최서해 등 카프 구성원들이 아나키즘을 자신의 사상적 지반으로써 포회하고 있었다는 선행 연구의 분석들이 이를 방증한다.[5]

---

2) 아나키즘이 1920년대 문화운동의 전개에 있어서 보편적 언어로 작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영현, 「아나키즘과 1920년대 문화지리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참조.

3)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제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294쪽.

4) 유병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아나키즘이 갖는 의미와 영향: 일본의 문예사상과 관련하여」, 『국제어문』 제71집, 국제어문학회, 2016, 227~228쪽.

5) 아나키즘 문학 연구는 총 두 갈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권구현, 김화산, 이향 등 당대에 아나키스트임을 자처한 문인들의 아나키즘 문학 연구가 있다. 둘째는 신경향파 문학과 카프 출신의 개별 작가들의 아나키즘 체험을 다루고 있으며, 이후 프로문학 활동에 있어서 아나키즘 사상의 영향을 해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글은 신경향파와 아나키즘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개조론과 아나키즘이 3 · 1운동 때 압도적인 힘을 발현한 민중을 사회운동의 언어로 해석하고 주체화하기 위한 이론적 언어였다면, 신경향파 문학은 1920년대 민중 중심의 문화/문학운동의 현실태였다. 신경향파 문학은 지식인의 관념에서 식민지 현실로의 변화를 지시한다는 주장이 프로문학 연구장[6]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근대문학과 근대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 아나키즘과 20년대 소설 지형도의 핵심인 신경향파 문학 간의 상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양자는 예술과 생활의 본연적 관계와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민중의 정열 · 본능 · 반역에 주목하고, 민중이 주체인 새 시대상과 파괴/창조성이 교차되는 민중적 개인의 행위를 중시하였다. 즉 민중과 그들의 생활을 포착하고 폭로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양자의 근본적인 공통점이다. 둘째, 많은 선행 연구가 지적하듯이 신경향파 문학은 특정 미학과 이념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초중반 문학 작품의 지형도를 의미한다. 이 지형도는 민중의 혁명적 주체성과 이를 사회 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박상준이 언급한 것처럼, 문단 지형도의 변화가 "또 다른 작가층들에 의해 촉발 · 기획된 것"이 아니라 "초기 문단을 구성했던 기성 작가들이

논의들을 염두에 두었다.
김종현, 「이기영 초기소설의 아나키즘적 경향 연구」, 『문화와 융합』 제26집, 문학과언어연구회, 2004; 김흥식, 「이기영 문학과 아나키즘 체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한점돌, 「한국아나키즘문학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3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이성혁, 「1920년대 한국 근대시의 전위성 연구: 아나키즘 다다와 임화의 초창기 시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손유경, 「사회주의 문예 운동과 인간 본성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이화진, 「조명희의 「낙동강」과 그 사상적 지반: 낭만성의 기원」,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2013; 유병관, 「정열과 반역의 시, 이상화: 아나키즘의 자장(磁場)」, 『泮矯語文硏究』 제36집, 반교어문학회, 2014; 이혜정, 「이익상 문학과 아나키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5집, 한민족문화학회, 2014; 이형진, 「최서해 문학에 드러난 아나키즘적 경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15; 변화영, 「식민지시기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이익상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6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위의 논의들은 신경향파 작가와 카프 문인들의 아나키즘 체험, 개별 작품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이 논의들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을 근본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만, 분석대상이 개별 작가에 한정돼 있어서 당대 담론장에서 양자가 갖는 발생론적 관계나 공통점을 추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6) 신경향파 문학과 프로문학의 최근 연구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이형진, 「1920년대 지적 능력 담론의 지배화 과정과 그 단절에 관한 시론: 민중, 우민, 독학자라는 주체성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43집, 동남어문학회, 2017, 64~67쪽 참조.

스스로의 작품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며[7], 신경향파 문학은 지형도의 변화에서 또 다른 차이를 강조하며 편승한 것이다. 이러한 소설 지형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나키즘이 주류인 사회주의 담론이었다. 또한 카프는 신경향파 문학의 개념을 정립할 때, 민중의 역능으로 본능과 창조성을 강조한 아나키즘의 언어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은 단순한 상동관계에 머물지 않고 발생론적 관계라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전술한 공통점은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이 카프의 문단정책에 의해 동일한 시기에 지양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양과 축출은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에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은 민중을 둘러싼 1920년대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민중 우위의 사회적 실천을 표방한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의 '탄생-지양-지양의 효과'를 살펴보고, 양자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 20년대 초에 급부상한 민중 담론이 일반화되고 문학장(文學場)에 침투하여 민중예술론이 제창된 경과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아나키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중예술론과 신경향파 담론 간의 상관성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아나-볼 논쟁과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의 논리를 살핌으로써,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의 상관성과 두 경향이 지양-축소되는 것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경향파 문학을, 단지 문예사조의 변동이나 '민족주의 대 계급주의'라는 이념적 역학관계의 소산이 아니라 민중 · 생활 · 민중의 주체화 과정을 재현하기 위한 20년대 문학의 새로운 창작 경향과 새로운 시대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논의를 펼치기에 앞서 '신경향파'라는 개념의 용례를 한정하고자 한다. 신경향파 문학에는 두 가지 용례가 존재한다. 우선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카프 문인들의 담론과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의 신경향파 문학이다. 첫 번째 용례는 작품을 창작한 문인들의 사회주의적 정치성과 계급주의를 강조할 때 쓰이는 일반적인 용법이다. 다음으로는 계몽주의에서 민중주의로 변동된 시대적 조건으로 구축된 민중 중심의 문학 담론을 지시할 때 쓰인다. 임화는 신경

7) 박상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 2000, 179쪽.

향파 문학의 두 경향인 자연주의적 경향(최서해적 경향)과 낭만주의적 경향(박영희적 경향)을 언급하면서, 이들 경향이 각각 자연주의와 낭만주의의 예술적 양식을 이어 받았으나 신경향파라는 단일한 경향으로 묶일 수 있다고 말한다. 두 경향이 "시대적 조건의 문학"[8]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여기서 시대적 조건은 문학이 인간에 대한 신뢰와 동정, 반항, 현실, 민중의 창조력 등을 발견한 것을 의미한다. 당대 카프 문인들도 신경향파 문학을 특정 문예사조로 이해하지 않고 20년대의 "사회적 세대(社會的 世代)"[9] 즉 사회적 공통인식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신경향파를 당대 민중의 출현과 그들의 시대적 주체성을 지시하는 용법에 힘을 실어 사용하고자 한다.

Ⅱ. 민중 담론의 형성 과정: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적 지반

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반제국주의적 저항 담론을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상으로 개조론을 주목하였다. 개조란 무엇인가?

"改造改造(개조개조) 그 무엇을 의미함인가. 세계라 운(云)하는 이 활동의 기계를 뜨더 고쳐야 하겟다 함이로다. 과거 여러 가지 모순이며 여러 가지 불합리 불공평 불철저 부적당한 기계를 수선(修繕)하야 원만한 활동을 엇고저 노력하는 중이엇다."[10]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독점자본주의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벌어진 최초의 총력전이었다. 그 참상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할 수 있는 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요청에 의해 개조론과 사회주의가 부각되었고, 식민지 조선도 국제 정세에 즉각 반응하여 개조론을 통한 신문화 건설운동에 주력했던 것이다.

또한 3 · 1운동에서 보여준 민중의 역능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개조론이었다. 지도부의 비폭력 저항을 무화시키고 순식간에 만세운동을 폭력저

8) 임화, 「소설문학의 이십년」(5), 『동아일보』, 1940년 4월 18일, 4면.
9) 임화, 「소설문학의 이십년」(6), 『동아일보』, 1940년 4월 20일, 4면.
10) 「세계를 알라」, 『개벽』 1호, 개벽사, 1920.6, 2쪽.

항으로 전환한 민중의 힘은 계몽주의 담론이 지배적이던 1910년대 언어로 해석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국과 만국공민의 평등적 · 평화적 관계를 표어로 내 건 개조론은 3 · 1운동에서 역능을 발현한 민중을 해석하고 민중의 생활을 지도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11] 개조론이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한 데에는 동학의 후천개벽 사상과 개조론을 접목시킨 잡지 『개벽』의 공헌이 지대하다. 『개벽』은 20년대야말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개선하고 인간의 본래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개조의 시대임을 선언했으며, 노동문제 · 부인문제 · 인종문제 등 민중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였다. 즉 개조론이 천착한 사회 문제란 민중의 생활이었던 것이다.

초기의 개조론은 민중의 본성을 각종 악습성(惡習性)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심성을 개조해야 한다는 유심론/정신개조론적 입장이 지배적이었다.[12] 그럼에도 초기의 개조론이 개조의 지향점을 민중으로 상정했다는 점에 대해선 주의를 요한다. 개조론은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세계사적 · 인류사적 과제가 민중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하며, 이후 건설될 새로운 사회의 주역도 민중이라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1910년대의 계몽주의와 달리 사회운동의 주체적 역할이 민중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성은 20년대에 들어서 창간된 각종 매체에 의해 널리 공포되었다. 아래는 창간된 지 이틀이 된 『동아일보』에 실린 김형원의 시다.

동아일보 나는/배달의 혼과 인류의 몸에
이십세기 문명을 입은
당신네 - 민중의 종이올시다.
가장 참되고 정성스러운
그러나 나는 아모 것도 모르는
가장 어리석고 헤아림 업는

11) 새봄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개조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주대전(歐洲大戰)의 종국(終局)과 공(共)히 세계의 민중은 각자의 총생활표(總生活標)를 개조 창조하야 정의인도의 큰 기치하에 집중코자하는 금일이리요." (새봄,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독(讀)함」, 『개벽』 제4호, 개벽사, 1920.9, 81쪽.) 새봄은 도덕과 정치가 분리된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관계를 영구평화적 관계로 구축하는 것을 개조의 목적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지덕 향상과 생활 개선의 개조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12) 현상윤, 「거듭나자」, 『개벽』 제19호, 1922.1; 이돈화, 「여론의 도(道)」, 『개벽』 제21호, 개벽사, 1922.3; 「악현상」, 『개벽』 제22호, 개벽사, 1922.4;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제23호, 개벽사, 1922.5 등이 유심론적 개조 사상의 대표적인 글이다.

모든 사물을 관찰할 눈도 업는
시비를 판단할 지력도 업는
오직 당신네의 참된 부르지즘을
정성것 들을 두 귀를 가젓고
당신네의 선(善)을 선전할
불갓흔 혀를 가젓고
민중의 도덕을 초(草)할
검(劍)가흔 붓대를 가진
동아일보 민중의 충복
나임을 알으십시오.
올슴니다. 나에게는
이목구비가 잇다해도
지정의(知情意)가 잇다해도
피가 잇고 뼈가 잇고
살이 잇다해도
아니 살은 목슴이 잇다해도
이것은 모두다 당신네
민중의 압헤 희생이올시다.

…13)

위의 시는 지식인의 독자적인 위치성을 지양하고 '민중 속으로'라는 구호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문화운동의 주체가 민중임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기본 소양인 지정의(知情意)는 민중의 '부르짖음' 앞에서 무력하거나 부차적인 능력으로 위치지어진다. 이 부르짖음은 민중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자각한 결과에서 나온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념에 자기의 삶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적 존재의 존재양식으로 선택한다는 아나키즘의 기본 신념이 깔려 있다.

개조론과 아나키즘은 1910년대 말부터 조선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20년대에는 사상적으로 상동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개조론은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 접합되면서 문화운동의 이론적인 지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중의 심성, 습성, 인격 등의 개조를 주장한 정신개조론이 사회주의 담론에 의해 극복되면서 사회주의는 개조론과 유의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13) 김형원, 「민중의 공복(公僕)」, 『동아일보』, 1920년 4월 2일, 5면.

20년대 초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아나키즘 사상이 활발하게 소개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제』, 『신생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 『청년에게 고함』[14]과 '파괴는 곧 창조'라는 바쿠닌의 명제가 널리 유포되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스펜서 식의 적자생존과 우승열패의 원리를 비판하고 모든 인간의 평등적 관계 속에서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호부조론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우승열패를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기 위한 개조사상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민중의 파괴 본능과 창조 본능을 강조하는 바쿠닌의 파괴/창조론[15]은 조선에서 민중의 반역(파괴) · 창조 · 생활 등이 민중 자신의 욕구를 실행할 수 있는 저항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아나키즘 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개조사상의 일부로 수용 · 유포되면서 지식인들 간의 입장의 편차를 떠나 보편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물론 1920년대 아나키즘은 수용하는 입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얼마든지 굴절 · 변형이 가능한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당대의 아나키즘은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새로운 사회 건설은 더 이상 지식인과 지도자 등의 특정 주체가 아니라 민중(혹은 인민)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었다. 둘째, 1920년대 조선 사회의 신흥적인 분위기는 민중의 출현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직접행동, 폭력투쟁,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봉기가 강조되었다. 이는 3 · 1운동에서 발현된 민중의 역능에 대해 환멸, 냉소 등 1910년대 지식인들이 보인 반응과 비교했을 때, 민중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

14) 김명진은 『동아일보』(1920.5.22)에서 『청년에 고함』을 일부 번역하고 이후 춘성, 우영생, 이성태 등도 번역하여 소개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검열되었다.

15) 바쿠닌의 파괴/창조론은 잡지 『신생활』을 중심으로 활발히 소개되었다. 잡지 『신생활』은 "자본의 탐람(貪婪), 인습의 무리(無理), 위압의 폭력"과 대중의 의사를 배척하는 바를 배척하고 자유사상, 평민문화, 신생활을 고취한다고 표방함으로써 민중담론을 선취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김명식, 「창간사」, 『신생활』 제1호, 신생활사, 1922.3, 6쪽.) 바쿠닌의 파괴/창조론을 설파하는 글들은 다음과 같다. "파괴던지 건설이던지 자기의 사상대로 고취하라" 혁암생, 「각성하라 신사상을」, 『신생활』 제1호, 신생활사, 1922.3, 41쪽.; "신생활이 시작함은 이곳 구생활의 파괴를 설명하는 것" 솔뫼, 「구시대와 신시대」, 『신생활』 제2호, 신생활사, 1922.3, 1쪽.; "신문화가 건설되려면 반드시 구문화의 폐허를 요구하며 일찍 구문화의 형적이 유(有)치 아니한 신기초를 요한다." 김명식, 「구문화와 신문화」, 『신생활』 제2호, 신생활사, 1922.3, 6쪽.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중을 특정한 정치적 신조를 갖는 집단이나 집단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개조론과 아나키즘이 조선에 확산된 결과, 민중은 지배계급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인 전체를 가리키면서도, 역사 발전의 주인이라는 전제 하에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아를 완성해야 할 존재로 규정되었다. 1920년대 초기의 민중 담론은 민중을 집단적인 성격보다는 자아를 완성해야 하는 민중적 개인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나키즘의 성격에서 비롯한다. 공동체주의의 집단적 결사와 개인주의의 자율적인 주체성은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나키즘은 연합주의의 원리를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매개로 내세움으로써 양자가 가진 편협성을 극복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사회의 주체와 주체성들을 상호 존중하고 자발성이나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 자유연합의 계기를 내포하는 것이다.[16] 아나키즘에서 주목하는 민중의 집단성은 주체의 자율성과 생명에 뿌리를 두기에 어디까지나 민중은 철저히 민중적 개인들에서 출발한다. 민중적 개인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자아와 자아의 완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신경향파 문학이 정립되는 과정 중에 발표된 염상섭의 글은 흥미롭다.

> 그러나 우금(于今)까지 논술한 바 자아의 확립, 자아의 완성 또는 실현이라 함은 무엇인가? 개성의 자유, 개성의 발전과 표현! 이것이 곧 내용이다. 개성이 자유롭고 발전되고 배양되며 살이 찌는 거기에서 자아는 확립되고 학충되며, 개성이 자유롭고 표현되는 거기에서 자아는 완성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은 항상 새롭고 항상 생장하는 것이다.[17]

염상섭의 글은 당대의 지상선(至上善)을 자아의 확립과 완성으로 규정한다. 염상섭이 주장하는 자아는 가네코 우마지(金子馬治)로부터 자연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성'과 막스 슈티르너의 '반역자'를 접맥시켰다.[18] 또한 자

---

16) "환경과 反차별" 편집동인 역(야기 타다시八木 正 저), 「전문과학주의라는 환상의 비판: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구축을 위하여」, 『오늘의 아나키즘』 제1호, 환경과 反차별, 2003, 27쪽.

17) 염상섭, 「지상선을 위하여」, 『신생활』 제7호, 1922.7.; 임규찬 · 한기형 편, 『프로문학의 성립과 신경향파-카프비평자료총서 Ⅱ』, 태학사, 1989, 81쪽.

18)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52집, 민족문학

아의 확립과 완성은 오스기 사카에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한 것이기도 하였다. 조선 문인들이 유학을 통해 일본 아나키스트 사상가들의 이론을 접하고 자신의 사상에 접맥시킨 것은 1920년대의 흔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계급문학을 비판한 염상섭이 아나키즘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병구의 분석대로 1920년대 초 문학예술에서 아나키즘의 계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카프 이전의 미분화된 사회주의 예술의 이념적 기반을 아나키즘/마르크시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적 경향 속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19] 그만큼 개인, 자아, 자유 등의 관념들은 문인들의 이념적 편차를 떠나 1920년대 초 문학 담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어들이었다.[20] 아나키즘과 자유주의 간에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나키즘에서 강조하는 개인과 자아, 자유를 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문맥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물론 아나키즘에도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경향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쿠닌의 말처럼 "오로지 자신을 둘러싼 개인들을 통해 자유로운 개성을 보완"하고 "노동과 사회의 집단적 힘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21] 개인과 자아, 자유는 개인에서 출발하여 요구되지만 사회 속 구성원들과의 연대와 연계를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연합을 향해 있다. 즉 개인이 가진 힘의 신장과 자아의 완성(혹은 자유의 쟁취)은 철저히 사회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유행한 자아의 완성과 실현이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栄)를 비롯한 일본 사상가들이 주창한 생명주의의 영향 때문이라는

사연구소, 2013 참조.

19) 최병구, 「사회주의 조직운동과 문학, 소설과 비평의 사이: 1927년 카프 1차 방향전환기 재독(再讀)」,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470~471쪽.

20) 예컨대, 신경향파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인 최서해도 창작집 『혈흔』의 서(序)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불순한 과거와 거칠은 현재는 나로 하여금 거칠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물질은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 내 맘은 늘 끓는다. … 내 앞에는 두 길밖에 없다. 혁명이냐? 연애냐? 이것뿐이다. 극도의 반역이 아니면 극도의 열애 속에 묻히고 싶다." (최서해, 「혈흔」, 곽근 편, 『최서해 전집』上, 문학과지성사, 1987, 13쪽.)
식민지 시기에서 연애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최서해는 물질에 의해 연애(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연애의 욕구를 반역으로 전화하는 계기로 언급한다.

21) 김홍옥 역(다니엘 게랭 저), 『아나키즘』, 여름언덕, 2015, 71쪽.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오스기 사카에는 앙리 베르그송의 생명주의 ·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 아나키즘 사상을 접합하여 특유의 생명주의 사상을 주창하였다. 그는 「創造的進化-アンリ口ベルグソ \ ン論(창조적 진화-앙리 베르그송론)」(1913), 「生の拡充(생의 확충)」(1913), 「生の創造(생의 창조)」(1914) 등에서 새로운 사회의 주체인 민중을 생명, 생명의 발현과 확충, 인생, 창조성 등으로 조명하고, 민중의 본능을 억압하는 일체의 것을 반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2] 오스기 사카에에게는 생명과 민중은 동의어인 것이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예술」에서 민중과 생명에 관한 논의를 민중예술의 논의로까지 확대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술의 권리를 독점하면서 예술과 일반 민중 간의 괴리가 심화되었음을 지적하고 민중에 의해, 민중을 위해, 민중에게 유익한 것이자 광명이 되는 민중예술의 출현을 촉구하였다.[23]

> 새로운 신흥계급은 자신의 예술을 가져야 한다. 그 사상과 감정과 불가항력적인 표백으로서의, 그 생기발랄한 생명력의 발현으로서의, 그리고 구사회에 대한 전투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예술을 가져야 한다. 민중에 의해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예술을 가져야 한다. … 우리는 민중의 젊은 생명력을 믿는다. 또한 인류의 도덕적 사회적 혁명을 믿는다. 이 민중예술에 대한 신앙, 즉 파리 건달들의 타성에 젖은 심약한 작품들에 대하여 공동체 생활을 표명하고 종족의 갱생을 준비하고 촉진하는 힘찬 남성적 예술을 건설하려는 열렬한 신앙은 우리들 청년시대의 가장 순결한, 또는 가장 건강한 힘의 하나였다.[24]

오스기 사카에는 민중의 감정과 사상, 생명력을 표출할 수 있는 투쟁 기관이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예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어로 번역한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이 발표되면서 민중의 생활에서 분리된 기존의 예술을 반성하고, 민중 중심의 예술을 제창하였다.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은 김억, 김기진 등 다수의 지식인들에 의해 번역 · 소개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선 지식인들의 번역이 일역본을 저본으로 삼았는데 그 일역본이 오스기 사카에의 번역본이다. 오스기 사카에는 로망 롤

---

22) 유병관, 앞의 글, 215~216쪽.
23) 大杉栄, 「新しき世界の為めの新しき芸術」, 『早稲田文学』 1917 (大正6) 年10月号.
24) 오스기 사카에, 위의 글, 25쪽.

랑의 『민중극론(Le Théêtre du peuple)』(1903)을 『민중예술론』으로 번역하고 자신의 아나키즘 사상과 결합함으로써 특유의 민중예술론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민중예술론은 조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지식인들은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을 소개하면서도 오스기 사카에의 아나키즘적 생명주의를 원용하여 민중예술을 해석하였다.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은 조선 문인들에게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쳤지만, 김기진을 필두로 한 계급예술 진영은 로망 롤랑에 대한 비판적 수행을 통해 민중예술론을 전개하였다.[25] 김기진은 여러 평론을 통해 바르뷔스와 로망 롤랑 간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운동을 지지하고 로망 롤랑의 예술지상주의를 "무정부주의자 또는 부르조아"[26]의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계급문학이 전개한 초기 신경향파 비평에서는 로망 롤랑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맥락과 더불어 오스기 사카에가 주창한 아나키즘적 생명주의와 민중예술이 공존한다.

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간극을 의식하고 무정부주의를 자유주의의 계열에 배치한 김기진의 평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김기진이 바르뷔스와 로망 롤랑의 논쟁을 평가한 동향청아(東鄕靑兒)의 글을 인용한 대목은 흥미롭다.

> 나는 생각한다. 인류 사회가 퇴폐기의 극점에 달할 때에 반드시 상반된 두 개의 조류가 출생하는 것을. 그것은 니체가 설파한 소극적 허무주의와 적극적 허무주의자이다. 소극적 허무주의자는 분명히 많은 기독교도와 같은 현실의 약자이요, 적극적 허무주의자는 건설적 허무주의자이다. 그것은 분명히 강렬한 파괴적 충동과 건설적 충동을 포함하는 강매(剛邁)한 강자(强者)이다.
>
> 현실의 혼란과 착잡을 피해서 유유(悠悠) 상아(象牙)의 탑에 자적하는 것은 용이한 것이다.
>
> 우리는 이미 산상(山上)의 니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저자 바닥의 니체야말로 현대가 열망하는 불길(炎)이다. 무정부주의의 아버지 바쿠닌으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들던 강렬한 파괴와 창조의 착잡한 연소, 그 현실 속에서 제 스스로 매진하

25) 박양신, 「다이쇼 시기 일본, 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 『翰林日本學』 제22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34쪽, 48쪽. 이후 조선 지식인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민중예술론을 주창하는데 내용의 상당수를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에 빚지고 있다.

26) 김기진, 「바르뷔스 대 로망 롤랑간의 쟁론: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 『개벽』 제40호, 개벽사, 1923.10, 46쪽.

는 철저한 몸뚱아리가 드디어 사회 전생(轉生)의 층계가 되는 것이다.[27]

김기진의 초기 비평들은 민중예술론을 기반으로 하여 신경향파 문학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로망 롤랑을 비판하면서도 바쿠닌의 파괴/창조론과 니체 식의 충동 개념을 민중예술의 본연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전환에서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다. 김기진은 1923~1924년에 등장한 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영성(靈性), 생의 본연한 요구의 문학, 반역 정신 등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한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김기진의 일련의 작업은 20년대 초중반의 문학 지형도를 부르주아 미학에 대립하는 프롤레타리아 미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그가 구축한 프롤레타리아 미학은 "인생에 대한 감격, 적극적 정열, 힘의 구가, 생명에 대한 철학"[28]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계급주의 진영에서 표방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아나키즘의 언어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나키즘의 흔적은 김기진에 국한되지 않고 신경향파 문학과 카프 창립의 주역이었던 임정재와 양명의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임정재의 글부터 살펴보자.

① 그러나 이 민중, 즉 사회에 재(在)하여 전적 자아확장으로써 사회를 교시하여가며 전인류의 평화와 완전한 무정부국가에 있어서 현실을 볼 과도기에서는 모든 운동은 인간적 즉 계급적 고심의 자아확장을 의미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29]

② 그러므로 이 시대적 경향은 동적 사회에 재(在)하여 필연적 과정이며 부르조와 예술의 영원성이 부멸(復滅)되는 것이다. 고로 이 경향은 부르조와 예술학상의 경향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국부적 생의 표현인 병적 운동이 아니고, 순연한 인간성의 발로로 우주이념의 전일(全一)에 향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이 계급사회에 영속적으로 변전(變轉)하는 사회에 이 예술이 완전하냐 하면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 운동 자체는 물론 충실할 것이며 충실할 것이다. 진정한 예술은 이 양계급이 소멸되고 완전한 무정부 사회를 형성할 때에 볼 수가 있을 것이다.[30]

---

27) 김기진, 위의 글, 51쪽.
28) 김기진, 「지배 계급 교화, 피지배 계급 교화」, 『개벽』 제43호, 개벽사, 1924., 26쪽.
29) 임정재, 「문사제군에게 여하는 일문」(상), 『개벽』 제37호, 개벽사, 1923.3, 39쪽.
30) 임정재, 「문사제군에게 여하는 일문」(하), 『개벽』 제39호, 개벼사, 1923.9, 30쪽.

임정재는 자아의 확장, 순연한 인간성의 발로, 완전한 무정부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술을 조명한다. 민중의 최종적인 행위는 사회를 교시(敎示)하고 진정한 예술을 도래케 하는 것이지만 그에 선행하는 것은 바로 자아의 확장과 인간 본성의 발로이다. 공산주의자인 임정재가 인간 본성의 발로와 진정한 예술이 이룩될 수 있는 사회로 무정부사회를 조망한 것을, 단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현 사회를 극복하고 자아의 확충과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신사회로 무정부사회를 전망한 것은 1920년대 조선 지식인들이 공유하던 관념이었다. 가령 원종린은 볼셰비즘과 무정부주의가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수단에서 다르지만, 국가의 억압적인 권력과 자본을 파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사상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원종린은 볼셰비즘을 "무정부주의사회로 행하는 일과정에 입(立)하야 무정부주의사회에의 도정(道程)을 착착 개척하는 것"[31]으로 여김으로써 두 사상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양명은 김기진이나 임정재보다 더 노골적으로 오스기 사카에의 생명주의와 민중예술론을 원용한다. 그는 김기진처럼 예술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인류의 생의 표현이자 작용인 예술은 인간의 삶이나 사회생활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의 소유물인 예술, 사람의 생의 표현인 예술이 인류의 절대다수인 민중을 제외하고 존재"하기 어려우며, 그간 특정인이 예술을 독점적하고 향유한 데에는 경제제도의 불합리 때문이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은 사람의 것이다. 동시에 민중의 것이다. 예술은 사람의 표현이다. 동시에 민중의 표현이다. 민중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요, 민중 이하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한다.[32] 민중예술의 종국적인 목적은 생을 풍부하게, 힘이 있게, 위대하게, 완미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양명은 민중예술이 구사회에 대한 전투기관이 되어야 하고, 민중의 고통과 희망 · 투쟁과 결부될 뿐만 아니라 민중의 계급적 자각을 촉발한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오스기 사카에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예술」과 로망 롤랑의 논의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33] 글의 말미에서는 로망 롤랑의 예술론에 내재한 자유주의적 경향을 비판

31) 원종린, 「노농종국(勞農露國)의 종국(終局), 뽈쉐뷔키와 무정부주의」, 『개벽』 제45호, 개벽사 1924.3, 70쪽.
32) 양명, 「민중본위의 신예술관」, 『동아일보』, 1925년 3월 2일, 5면.

하지만 그의 민중예술론에는 대체로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선의 민중예술론은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의 영향 하에서 전개되었지만, 오스기 사카에의 논의를 차용하여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을 이해하고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기진, 임정재, 양명 등이 전개한 초기 신경향파 비평은 『민중예술론』에 내재된 자유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면서도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관과 오스기 사카에의 아나키즘적 생명주의를 신경향파 담론을 구축하는 자양분으로 삼았다. 신경향파 비평의 공통점은 민중을 단지 지배계급과 지식인계급에 대비되는 군집으로만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20년대 초중반의 민중은 '대다수의 힘에 의하여 개조의 신기운을 일으키는 자'라는 집단성이자 '자신이 가진 힘을 각 방면에서 응용하면서 정의·인도의 힘을 취한 자'라는 개인으로 주목받았다.[34] 이후 신경향파 문학이 내적 충동·영성·생의 본연한 요구와 확충 등 인간의 본능에 주목하고 개인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높이 평가한 것은, 아나키즘의 언어로 굴절·접속된 민중예술론과 생명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신경향파 탄생의 근저: 문단 기획과 생명주의

1920년대 문학 지형도의 전환은 계급문학에 앞서 민중예술론의 영향 하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도의 변화에서 탄생한 신경향파 문학은 대체로 프로문학으로 평가받지만, Ⅱ장에서 살펴봤듯이 신경향파 문학을 정립한 비평적 언어는 대부분 아나키즘과 민중예술론에서 차용되었다. 이

33) 그 사상과 감정과 불가항력적인 표백으로서의, 그 생기발랄한 생명력의 발현으로서의, 그리고 구사회에 대한 전투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예술을 가져야 한다. 민중에 의해 민중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을 갖추어야 한다. (其の思想と感情との已むに已まれぬ表白としての、其の若い溌溂とした生命力の発現としての、そして又、老い傾いた旧い社会に対する戦闘の機関としての、新しき芸術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 민중예술은 민중의 고통과 희망, 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民衆芸術は、民衆の苦痛と、其の希望と、其の闘争とを相倶あいとも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그래서 나 자신의 정책은 곧 나의 예술적임과 더불어 사회적 이상은 이러한 두 가지 민중을 융합시켜 민중 자체에 그 계급적 자각을 줄 것이다.(そして吾々自身の政策は、即ち吾々の芸術的であると共に社会的な理想は、此の二種の民衆を融合させて、民衆自体に其の階級的自覚を与える事にある。)
大杉栄,「新しき世界の為めの新しき芸術」,『早稲田文学』1917 (大正6) 年10月号.

34) 이철,「무종교라야 유종교」,『개벽』제37호, 개벽사, 1923.7, 31쪽.

처럼 신경향파 문학에 내재한 복합적인 면모는 신경향파 문학의 정의를 해명하는 데 난항을 발생시킨다. 박상준은『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소명, 2000)에서 사회주의적 자연주의를 변별적 자질로 내세워 신경향파 문학과 그 외의 문학작품을 구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신경향파 문학은 순수한 미학적 개념도 아닐 뿐더러 문단의 지형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사회주의적 자연주의가 모든 신경향파 작품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35] 박상준도 신경향파 소설의 외연이 신경향파 담론이 갖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과장되었음을 인지하지만[36], 신경향파 소설의 외연을 범주화하는 작업에선 모순을 보였다. 그만큼 신경향파 문학의 정의와 외연의 범주를 구획하는 일은 어렵다.

신경향파 문학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에 내재된 두 개의 시점부터 언급되어야 한다. 신경향파는 "민중적 생활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문단의 시대적 문학정신을 표방하는 당대적 시점(1922~1926)과, 카프의 방향전환 이후 또는 카프의 문학사 작업에서 프로문학을 단일한 발전 서사로 구축하려는 역사정립적인 시점(1927~)이 존재한다. 후자는 부르주아 문학과 프로문학 간의 대립・투쟁・지양・발전 등 변증법적 유물사관 하에서 신경향파를 프로문학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욕망이 강하다. 그래서 후자는 계급문학의 당파성과 이념・지양과 발전의 맑스주의적 역사발전론의 형식 외에 신경향파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결여하고 있다. 신경향파의 탄생과 의미를 다루는 선행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시차를 상정하지 않거나, 이를 상정하더라도 카프 문단 정책의 전개과정이나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통해서 신경향파 문학의 의미를 해명하므로 신경향파 문학을 다시 단선적인 프로문학사로 환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글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시점 즉 아나키즘과 민중예술론의 영향 하에서 문학 지형도가 변화해가는 시점을 중심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탄생을 논구하고자 한다.

'신경향파'라는 개념은 박영희가「신경향파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에서 민중 본위의 문학의 출현을 지시하면서 등장하였다. 박영희는 이 글에서 민중

35) 손유경,「최근 프로 문학 연구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상허학보』제19집, 상허학회, 2007, 284쪽.
36) 박상준, 앞의 책, 383쪽.

본위의 문학을 부르주아 문학의 대자적 존재로 정립하기 위해 신경향파라는 신어를 만들고 무산계급 문학과 동일시하였다. 이 글은 기존의 민중 본위의 문학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무산계급 문학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그러나 민중의 출현을 계급의 출현으로, 민중 본위의 문학을 계급문학으로 동일시하는 논조로 전개된 글의 말미에는 "신경향파란 말은 각각 작품에 나타난 색채를 종합적으로 대표한 말이며 소위 말하는 '소극적 당파'가 아닌 것을 말하여 둔다"[37]라고 부기함으로써 신경향파의 의미를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이 문장은 신경향파 문학이 민중으로 표상되는 당대 시대정신과의 상호협의적인 소통작용에 의해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문학을 살리기 위해서 건설하자!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현대상활에는 문학도 생활을 떠나서 가치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 수평적 향상을 위한 민중의 문학을 건설 때가 이르렀다.
>
> …
>
> 그러나 그 작품들이 모두 무산계급문학으로써 완성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나뿐만이 할 말이 아니라 작가 자신도 할말일줄로 안다. 다만 부르조아 문학의 전통과 전형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은 자신있게 할 소리인 줄로 안다.
>
> 일반으로 **그 창작의 내면을 보면(遊蕩)을 떠나고 정서지상을 떠나고 압박과 착취적 기분을 떠나 생활에, 사색에 해방에 민중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새로운 경향**은 전무한 신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 그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은 모두 다 새 사회를 동경하는 개척아이었으며 그가 부르짖는 선언은 모두가 생활에 대한 진리의 계시였다. **그들은 스스로가 현 사회제도에서 고민하여 그 곳에서 생기는 불법과 폭행에 대한 파괴와 또는 불평을 절규하며 따라서 그들은 무산적 조선을 해방하려는 의지의 백열(白熱)**을 볼 수 있었다.[38] (강조는 인용자)

박영희는 현 문학이 정서와 사색 등 지식인의 관념 일색으로 점철된 동인지 문학에서 민중적 현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문학이 민중과 민중의 생활을 주목한 것은 전무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경

37) 박영희, 「신경향파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 『개벽』 제64호, 개벽사, 1925.12, 5쪽.
38) 박영희, 위의 글, 4쪽.

향파의 의미다. 박영희가 신경향파를 소극적 당파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신경향파가 재현하는 주체가 프롤레타리아처럼 사회주의적 정치운동의 합목적성에 의해 구성된 계급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 전체를 막연하게 지시하는 일반 민중이기 때문이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조선인들을 무산계급, 무산대중, 대중, 민중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했는데 민중은 무산계급, 무산대중, 대중 등과 호환해서 쓸 수 있었다.[39] 이 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무산자나 무산대중(또는 민중) 등은 계급을 지배계급/피지배계급, 유산계급/무산계급, 착취계급/피착취계급의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아나키즘의 계급관에 기초한다. 또한 박영희가 신경향파를 당파성으로 환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경향파 소설에서 재현한 주체가 노동자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산계급 문학의 정립을 위한 박영희의 기획은 『개벽』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192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 그는 『개벽』의 문예부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기획한 주제가 「신춘독자문예대모집」과 「현상소설대모집」이었다. 두 기획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문예라는 것이 인생의 감정 혹은 정서를 순화시키는 데에, 큰 권력을 가젓다는 것 보다도, 문예는 인생생활에 확평(確平)한 근거를 두어가지고, 사상향상과 생활계발에도 다대(多大)한 영향을 주는 시대는 왓다. 그런고로 문학은 지자(智者)들의 고민을 위로하려는 일부 혹 일포(一圃)의 전용적(轉用的) 수단이 안이라 전민중 쏘는 전인류의 보통적 문예가 되여야겟다.[40]

> 이와 가티 현금까지에 조선문예의 다수는 그들의 외적 생활고와 아울러 그 고민이 동경하는 엇더한 위대한 진리 사이에서 부듸쳐 나오는 광명을 발휘시키기에는 너무도 사색이 부족하엿다. 아니다. 너무도 문예를 악향적(樂享的)으로 독립시키려 하엿스며 문예를 기교화하려고 하엿든 예도 사실이다. 얼는 말하면 이제 현상문예모집을 하는 본사의 목적은 침체와 권태의 항구에서 헤매는 우리 사상에 새로운 광명을 빗치게 하며 시대적 진리를 차지려 함이다. 즉 말하면 제씨(諸氏)의 문예에서 새로운 시대를 발견하려 함이요 새로운 진리를 구성하려 함이며 새로운 약동을 엿보랴는 것이다.
>
> 그럼으로 그 시대에 잇는 사람은 그 시대에 고민을 유감업시 발표하려고 노력

39) 특히 1920년대의 민중과 무산대중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허수, 「1920~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제77집, 한국역사연구회, 2010, 345쪽.
40) 「신춘독자문예대모집」, 『개벽』 제55호, 개벽사, 1925.1, 98쪽.

하려는 데에 그들의 생에 대한 사명이 잇다. 문예는 시대정신의 산물이며 그 시대에 처한 인간고의 부르지짐이다. 그런 고로 신시대에 잇는 우리의 문예는 우리 시대에 대한 진리가 되여야 할 것을 끗흐로 한 마듸 하여 둔다.[41]

박영희에 따르면 이전의 문예는 지식인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용하는 독점물이어서 민중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문예가 사상·생활과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박영희는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문예가 독점적인 수단이 아니라 일반 민중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신춘독자문예대모집」의 취지는 앞서 살핀 민중예술론의 논지와 거의 일치한다. 1920년대 문학적 경향이 관념과 사색 위주에서 민중의 생활로 전화했다는 진단은 당대 문인들의 공통인식일 뿐, 박영희 고유의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3개월 뒤에 공모한 「현상소설대모집」이다. 『개벽』 창간 5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단편소설 공모전은 작품 공모의 참여 주체를 일반 독자로까지 확대하여 작가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신춘독자문예대모집」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춘독자문예대모집」은 문학 지형도의 추이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당대 문학장(文學場)에서 제창된 민중예술론의 당위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데에 그친 반면, 「현상소설대모집」은 공모 작품의 장르를 원고지 70매 분량의 단편소설로 한정하고 문학의 정치성을 확고히 드러내었다. 기존의 문예는 퇴폐와 향락, 기교 중심이기에 새로운 시대의 광명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광명을 발휘한다는 것은 클라르테 운동에 내재한 유물론적 변증법의 현실 분석/탐구를 의미한다. 클라르테 운동은 사회주의 문학운동이며 「클라르테」의 작가 앙리 바르뷔스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며,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분석 · 탐구하면서 제국주의와 계급착취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김기진은 일본 유학 중 잡지 『씨부리는 사람들』을 통해 앙리 바르뷔스와 로망 롤랑 간의 논쟁을 접하여 이 논쟁을 여러 지면에서 걸쳐 소개하고, 현시대의 문학은 미를 창조하는 것보다 사회의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영희가 김기진의 의견에 동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영희는 "문예는 시대정신의 산물이며, 그 시대에 처한 인간고의 부르

41) 「현상소설대모집」(본지 창간 5주년 기념으로)」, 『개벽』 제58호, 개벽사, 1925.4, 60~61쪽.

지짐"라며 현상공모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신경향파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에서 내린 신경향파의 정의와 일치한다.

박영희의 작업은 무산계급 문학의 정립이라는 이념적 · 정치적 지향성을 내포한다. 그렇지만 무산계급 문학의 정립이라는 이념적 지향성과 20년대 중반의 소설 지형도를 지시한 신경향파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최근에 출현한 작품의 경향은 "모두 무산계급문학으로써 완성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르조아 문학의 전통과 전형에서 벗어나와서 새로운 경향"[42]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1925년경의 박영희가 볼 때, 신경향파는 무산계급 문학이 아니라 부르주아 문학의 전통에서 벗어난 민중예술에 가까운 것이다. 설령 신경향파 문학의 범주를 무산계급 문학의 전망을 담지하는 작품군으로 축소하더라도, 1920년대 초중반 작품들은 대체로 민중적 생활에 대한 응시, 비참한 현실에 대한 폭로와 타개, 민중적 개인의 자각과 즉각적 행동, 이분법적 계급관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박영희가 정의한 신경향파 문학은 1920년대 초중반 문학의 지형도인 민중예술론에 계급적 전망을 가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경향파 문학이 보여준 새로운 경향, 즉 구체적인 작품의 특질은 무엇인가? "… 그들의 형식에는 불만한 그 만큼 본질에는 충실하려 하였다. 또한 형식에 매몰되었던 그 만큼 그 주인공의 최종은 파괴, 살인, 조소, 선전……등의 답변이 있었다."[43] 이후 문학사가들도 신경향파 소설의 특징으로 첫째 빈궁을 과장 · 확대하여 소재로 삼는다는 점, 둘째 빈부를 기준으로 선악의 구도와 '착취계급/피착취계급'의 이분법적 계급구도를 설정하는 것, 셋째 빈궁에 대한 반항을 살인 · 방화 · 파괴 · 폭력 등으로 형상화하는 것, 넷째 빈궁에 대한 반항이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의 즉자적 행동에 그친다는 것, 다섯째 계급의식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등을 든다.

소설 작품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신경향파 문학과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 사이에는 변별적 자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신경향파 소설은 최서해의 「탈출기」와 「기아와 살육」, 박길수의 「땅파먹는 사람들」,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 송영의 「늘어가는 무리」와 「선동자」 등으로 꼽힌다. 이 같은 작

42) 박영희, 앞의 글(1925), 4쪽.
43) 박영희, 앞의 글(1925), 5쪽.

품들은 현진건의 「불」, 김동인의 「감자」, 나도향의 「물레방아」와 「지형근」 등과 명확히 변별되지 않는다. 신경향파 소설과 후자는 차이성보다는 빈궁 · 살인 · 방화 등의 유사성을 더 강하게 띤다. 빈궁 · 살인 · 방화 등의 제재는 신경향파 소설보다 후자 쪽에 더 뚜렷이 나타나기에, 신경향파 소설의 특질에 대한 박영희의 언급은 1920년대 초중반 소설의 공통적인 특질에 대한 현상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된다. 빈궁 · 살인 · 방화의 소재가 1920년대 초중반 소설의 공통적인 창작 경향이라면, 박영희는 어떤 기준으로 신경향파 작품과 그 외의 작품을 변별할 수 있었는가?

우선 문단 지형도에 대한 『개벽』의 방향전환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년대 초 『개벽』은 민족주의자, 생디칼리스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입장의 필자들이 참여한 종합 잡지였다. 특히 『개벽』 문예란에는 김억, 염상섭, 나도향, 현진건, 이광수, 김기진, 박영희 등 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이념과 문학관은 상반되는 것이었다. 『개벽』은 1923년부터 지면에 산재한 다양한 입장을 사회주의로 통합하려는 담론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영희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무산계급 문학의 제도적 기초로 정립하기 위해 『개벽』 문예란의 필진을 사회주의에 막연히 동조하는 인물들로 채워나갔다.

[표 1] 신경향파 작가와 작품 목록

작 가	작 품	발 표 지	작가	작 품	발 표 지
김기진	붉은 쥐	『개벽』 제53호	최학송	기아와 살육	『조선문단』
조명희	땅 속으로	『개벽』 제57호	박영희	전투	『개벽』 제55호
이익상	광란	『개벽』 제57호	박길수	땅 파먹는 사람들	『개벽』 제61호
이기영	가난한 사람들	『개벽』 제59호	송영	늘어가는 무리	『개벽』 제61호
주요섭	살인	『개벽』 제60호	최승일	두 젊은 사람	『개벽』 제62호

위의 표는 박영희가 「신경향파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에서 언급한 신경향파 작가와 작품 목록이다. 신경향파 작가들 중 최서해를 제외한 인원들의 작품이 모두 『개벽』에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작가는 당대의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에 비해 문단 내 지위와 대중적 지명도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기성 작가와 신경향파 작가는 이념적 지향성으로 구별되기도

어려웠다. 예컨대 염상섭은 일본 유학에서 오스기 사카에의 아나키즘과 앙리 베르그송의 생명주의를 접하여 자신의 초기 미학을 구성한 이력이 있었고, 현진건은 사회계층의 분화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들을 창작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신경향파 작가의 호명은 기성 작가들이 아니라 새로운 작가들을 통해 새로운 문학을 정립하겠다는 박영희의 정치적 의도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박영희의 『개벽』 활동은 새로운 문학을 정립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향파 문학 탄생의 기저였다. 그럼에도 박영희가 지목한 신경향파 작품에는 특정 사상이 공통적으로 관류하고 있었다.

신경향파 작가로 거론된 인물 중 김기진, 조명희, 이익상, 이기영, 최서해 등은 유학 도중 아나키즘 운동에 가담했거나 아나키즘의 언어에 의존하여 사회주의를 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조명희는 조선인 유학생이 결성한 아나키스트 단체인 흑도회와 관계를 맺었고, 그의 대표작인 「낙동강」(『조선지광』, 1927.7)에는 오스기 사카에의 생명주의 사상이 관류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생명의 거부! 생병의 거부! 여긔에는 허무 밧게 업다.
>
> 모든 것을 다 부시여라! 모든 것을 다 불사러 바려라! 다만 허무다. 허무에 대한 반역이다.
>
> 그러타고 자살하기는 실타. 도페(逃避)하기도 살타. 어대 좀 견뎨여 나가보자! 억지를 쓰고 사러보자! 빙양(氷洋)의 백웅(白熊) 가티, 빙양(氷洋)의 백웅(白熊) 가티... 최후에는 피를 어름 우에 쏘다노코 죽드라도...
>
> ...
>
> 이리하야 일주일이 지내엿다. 한 달이 지내엿다. 또 한 달이 지내엿다. 엇지 지내여 가는 모양인지 정신차릴 수가 업다. 어나 때를 굴멋는지 어나 때를 먹엇는지 세아릴 수 업다. 다만 끼를 때우기에 힘을 쓰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마럿다. 그 밧게는 생활의 의의를 차질 수 업게 되엿다.
>
> 생명의 침체다. 아조 침체다. 예전쯤 해서 무슨 내성생활(內省生活)을 한다고 반성의 고통을 늣기며, 쓰리니 압흐니 하던 때는 참으로 황금시대이다. 멧 달전 자긔 혼자 지낼 때는 오히려 유토피아시절이다. 그런 긔아(飢餓)의 영광, 고적(孤寂)의 낙토(樂土)를 지금 안자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업는 일이다.[44]

44) 조명희, 「땅 속으로」, 『개벽』 제57호, 개벽사, 1925.3, 21~22쪽.

「땅 속으로」는 생명이 정복당하는 조선의 현실에서 굴종할 것이냐 반역할 것이냐 하는 문제, 생의 확충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생명의 의의는 단지 구복(口腹)을 충족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활은 구복 외에 자신의 의식체험을 관찰하는 의식적 행위와 창조적 본능 등 정신적 활동을 포괄한다. 그러나 "황금시대" 즉 물질만능주의의 시대는 사람의 활동을 외적 생활에만 치우치게 만들어 생명력을 침체시킨다. 생명의 거부, 생병의 거부에는 허무 밖에 남지 않고, 이러한 허무는 필연적으로 반역을 초래한다. 조명희의 「땅 속으로」는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에서 생명력이 침체되는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역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생명은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중대하게 다뤄진다.

> 무슨 사회주의의 입내를 마트랴함은 아니다마는 원래 「내것」 「남의 것」하는 소유의 관념에는 자긔는 그리 중대한 가치를 인정치 안는다. 「나」라는 자체가 벌서 「남」에게서 나왓고 「나」의 생명이 「남」의 노력을 힘닙어 사는 바에 「나」도 「남」을 위하야 유익을 줄만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잇는 줄 안다. 그 의무를 이행한 연후에야 비로소 「남」의 노력을 힘닙을 권리가 잇겟다. 그럼으로 자긔의 생명이 사회에 해독을 끼치지 안코 자타(自他)에 유익한 일을 한다하면 자긔는 누구의 은혜를 입던지 자긔의 생명권은 그를 바들 만한 양심이 잇슬 뿐 아니라 또한 그를 구할 권리가 잇다.[45]

「가난한 사람들」은 소유의 관념을, 빈자의 생명에 대한 부자의 착취로 의미화하고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였다. 자신의 생명은 사회구성원인 타인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며, 이러한 생명권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만 지속된다. 자신의 생명이 타인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듯이 자신도 타인의 생명권을 위하여 유익을 주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사유재산의 부정이라든지 자타의 유익이 연대의식으로 유지된다는 대목들은 아나코-생디칼리슴의 골자와 거의 일치한다.

조명희와 마찬가지로 이기영도 동경 유학 시절에 흑도회에 가담하였으며 흑기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을 한 경험이 있다. 흑도회는 재일 조선인들이 만든 사회주의 단체이며 이 단체를 후원한 사람이 바로 아나코-생디칼리스트

45) 이기영, 「가난한 사람들」, 『개벽』 제59호, 개벽사, 1925.5, 80쪽.

인 오스기 사카에이다. 흑도회에는 아나키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 등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아나키즘 계열의 재일 조선인들은 오스기 사카에의 지도하에 있었다. 조명희와 이기영은 오스기 사카에의 민중예술론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흑도회 활동을 통해 오스기 사카에의 아나키즘 사상과 민중예술론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영희가 1920년대의 문단활동을 회고하면서 조명희 · 이기영의 작품이 다른 프로문학과 구별되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두 사람이 흑도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46] 흥미로운 것은 생명의 확충이 최서해의 「탈출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 김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나부터 살려고 한다. 이때까지는 최면술에 걸린 송장이었다. 제가 죽은 송장으로 남(식구)들을 어찌 살리랴.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를, 험악한 이 공기의 원류를 쳐부수어야 하는 것이다.
>
> 나는 이것을 인간의 생의 충동이며 확충이라고 본다. 나는 여기서 무상의 법열 느끼려고 한다. 아니 벌써부터 느껴진다. 이 사상이 나로 하여금 집을 탈출케 하였으며, ＸＸ단에 가입케 하였으며, 비바람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벼랑 끝보다 더 함한 선에 서게 한 것이다.[47]

'송장'은 외적 생활(생활고) 때문에 양심에 의거한 행동을 하지 못한 자신을 일컫는다. 즉 생명의 침체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최면술을 걸려는 무리'와 '험악한 공기의 원류'에 대

---

46) 박영희는 조명희와 이기영의 작품이 여타의 프로문학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조명희)의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이란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도시의 한편 구석에서 비벼대고 살고 있는 몰락하여 가는 지식청년들이었다. … 그는 계급의식보다는 한국청년들의 민족적인 혁명의식을 더 많이 들어내려고 하였다. … 그러므로 포석의 작품에 나타난 계급의식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투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억압 밑에서 신음하는 민족, 대중, 계급의 생활과 고뇌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혁명의식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곳에서 포석은 다른 작가들(계급의식의)보다 원만성이 있었고 비교적 넓은 면을 가졌었다.
이기영군(민촌)은 포석과 친우였고 또 같은 경향의 작가이었다. 민촌의 작품에도 의식적인 노동자보다는 빈민이 더 많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 빈민중에는 농민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후일 그를 농민작가로 일컫게 되었고, 또 민촌 자신도 농민문학에 주력하게 되었다.
… 따라서 민촌의 작품도 「카프」의 정책적 문학방법과는 달리 자신의 독자적인 발전을 서서히 하여 왔었다."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8), 『현대문학』 제64호, 1960.4.; 임규찬 · 한기형 편,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카프비평자료총서 Ⅰ』, 태학사, 1989, 400~401쪽.

47) 최서해, 위의 책, 23쪽.

한 반항(반역)뿐인 것이다. 최서해는 반역을 생명의 충동이자 확충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신경향파 소설은 생명의 침체와 확충을 근본으로 삼고, 생명이 침체되었을 때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반역을 제시한다. 신경향파 문학은 무산계급 문학을 정립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반항을 작품 창작의 근저로 삼고 있었다. 신경향파 문학은 신경향파 비평과의 담론적 연계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감각 즉 생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원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고유의 실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진건, 김동인, 나도향 등의 작품들과 변별을 갖는 지점이다.

> 이제 근대사회의 정복 사실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정복계급 자신도, 중간계급도, 또 피정복계급도 모두 이 사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복 계급은 과대 혹은 비정상적인 삶의 발전에 고심하기 시작했다. 피정복 계급은 그 압박받는 삶의 질식에 고뇌해 왔다. 그리고 중간계급은 또 이 두 계급의 고뇌에 시달려 왔다. 이것이 근대의 삶의 고민의 원인이다.
>
> 여기서인가,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복의 사실에 대한 증오가 생겨야 한다. 증오가 반역을 살려야 한다. 새 생활의 요구가 일어나야 한다. 사람 위에 사람의 권위를 받지 않는, 자아를 주재하는, 자유 생활의 요구가 일어나야 한다. 과연 소수자 사이에 특히 피정복자 중의 소수자 사이에 이들 감정과 사상과 의지가 있었다.
>
> 우리의 삶의 집념 깊은 요청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가장 유용한 활동으로 먼저 정복의 사실에 대한 반역이 나타났다. 또 다른 정복의 사실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삶의 확충을 장애로 하는 일체의 사물에 대한 파괴가 나타났다.
>
> 그리고 삶의 확충 속에서 삶의 지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나는, 이 반역과 이 파괴 속에만, 오늘 삶의 지상의 미를 본다. 정복 사실이 그 정상에 오른 오늘날에는 계조(階調)는 더 이상 아름다울 게 없다. 아름다움은 단지 난조(乱調)에 있다. 계조(階調)는 거짓이다. 사실은 단지 난조(乱調)에 있다.
>
> 바야흐로 생의 확충은 반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신생활의 창조, 신사회의 창조는 단지 반역에 의한 것일 뿐이다.[48]

오스기 사카에는 인류 사회의 역사가 정복에 근거한다고 본다. 생의 확충은 생의 근본적인 성격이자 인간의 의무이다. 그러나 정복은 인류를 정복자와 피

48) 大杉栄, 「生の拡充」, 『近代思想』, 1913 (大正2) 年.

정복자로 분할한다. 피정복자는 삶의 확충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정복자의 의지와 명령에만 작동하는 노예가 되었다. 삶의 근본은 생의 확충이기에 이러한 확충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사물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도 삶의 필연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오스기 사카에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발전은 정복과 그 정복에 반하는 반역과 창조로 추동되었다. 현대사회의 정복은 이례적으로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삶의 확충, 신생활의 창조, 신사회의 창조는 오로지 파괴와 반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아나키즘적 반역의 미는 신경향파 소설의 내적 원리와 상통한다.

초기 신경향파 소설은 비참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자아의 고뇌를 절대화하고, 비참한 현실과 개인 사이에서 침체되는 자아의 생명을 문제시한다. 외부적 생활은 생명의 확충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로 간주되며, 이러한 외부적 생활에 둘러싸인 자아는 시체 이미지로 표상된다. 앞서 살펴본 조명희, 이기영, 최서해 등의 작품들은 빈곤한 삶에 의해 자아가 자신의 생명을 표출하지 못해 고뇌하고, 침체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파괴와 반역(반항)을 택한다는 서사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신경향파 소설의 기저에는 자아의 생명과 이를 위한 반역과 열정이라는 낭만적 저항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문학사가들이 집단성의 결여를 신경향파 문학의 한계로 지적한다. 이는 신경향파 문학이 생명, 반역, 민중적 개인의 자각 등을 강력한 해방 언어로 삼는 아나키즘과 민중예술론, 다이쇼기 생명주의 등의 사상적 자원과 관계하여 형성되었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Ⅳ. 사멸된 반항의 언어, 부활한 계몽의 문법

신경향파 문학은 당대 유행한 아나키즘과 생명주의, 민중예술론으로 구축되었지만 문단의 정치적 기획의 소산임에 틀림이 없다. 신경향파 문학은 탄생에서 소거되기에 이르기까지 카프의 문단 정책과 문단 내 논쟁의 과정에서 특정 위상적인 개념으로 배치되고 변별되었다. 신경향파 문학은 당대의 민중예술과 확연한 차이를 갖지 못하지만, 카프 문인들의 신경향파 비평과 관계할

때 다른 문학과 구획되어 그 실체성을 획득한다. 그만큼 신경향파 문학을 논구함에 있어서 카프의 존재는 자못 거대한 것이다.

Ⅲ장과 마찬가지로 이 장의 작업도 시점을 중시한다. 방향전환 이전의 카프와 방향전환 이후의 카프는 논리적인 측면에서나 그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의존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경향파 문학을 정립한 초기 신경향파 비평은 다분히 아나키즘의 언어에 의존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의 카프는 마르크스주의자, 아나키스트, 생디칼리스트 등 다양한 입장을 지닌 문인들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천도교 세력과도 일정 관계를 맺을 만큼 단일한 이론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무산계급 문화의 수립을 기"한다는 강령 때문으로 보인다. 강령의 '무산계급'은 특정 이념의 계급성과 집단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민중 본위의 문학, 무산자 중심의 문학을 주창하는 문인들이라면 충분히 카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은 아나-볼 논쟁과 제1차 방향전환이 전개된 시기를 중점으로 삼아 이들 논쟁을 살펴보고, 신경향파와 아나키즘의 상관성을 규명하면서 이들이 논쟁에 의해 지양되는 정치적 효과를 해명하고자 한다.

카프는 내용형식 논쟁, 제1차 방향전환, 아나-볼 논쟁 등을 통해 조직 내 산재된 다양한 주장을 과학적 사회주의로 통합해 나갔다. 흥미로운 점은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이 카프 결성 직후에는 특별한 논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일련의 논쟁을 통하여 역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은 카프에 의해 지양되는 시점에서야 마르크스주의 문예와 변별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카프의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르크스주의 문인들이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 담론에 의존하여 민족주의 문학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와 달리 조선 사회주의 노선과 일본문단의 방향전환을 접하면서 점차 과학적 사회주의의 언어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을 맞추어 카프 문인들은 조직 내 분산돼 있는 입장을 통합하기 위하여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여기서 방향전환이란 자연발생적인 신경향파 문학을 목적의식적인 무산계급 문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희는 「신경향파 문학과 무산파의 문학」에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경향파 문학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 한 노동자가 한 자본가를 ＸＸ하였다 하면 이것을 허무적 행동이외에는 무산계급의 투쟁적이라고는 하기 어려웁다. 프로문예의 투쟁적 성질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복수행동이 아니라 계급ＸＸＸ으로서의 대 계급적 ＸＸ을 말하는 것이다. 일 노동자가 일 자본가를 ＸＸ하였다고 자본가 계급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이럼으로써 우리는 신경향파 초기에 있는 개인행동적 투쟁이라는 것으로 부터 참으로 계급이 계급과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투쟁하여서 ＸＸＸＸ는 무산계급의 ＸＸＸＸＸＸＸＸＸＸ비로소 완전한 이후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의 투쟁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49]

박영희는 신경향파 문학이 “어떤 생명력을 성장”하려는 노력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완전한 체계를 구유(具有)한 독립적 문학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의식을 결집하는 현상적 문학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의의를 축소한다. 「신경향파 문학과 무산파의 문학」의 논법은 신경향파를 실체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작가와 작품 목록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전의 논의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주인공의 살인, 방화. 폭행, 호규(號叫) 등은 사회적 전망이 결여된 민중의 속성으로 간주된다. 박영희는 이 글을 통해 민중적 개인의 행동을 전면에서 폐기하고 정치적 합목적하에서 구성된 집단적 움직임을 재현하는 것을 무산계급 문학의 역할로 설정한다. 이때 무산계급은 막연하게 식민지 조선인 전체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으로 한정된다.

>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진실하지 못한 분자를 우리 프롤레타리아문단 자체내에서 도태시켜 버리는 동시에 철ＸＸＸＸＸＸ을 소유한 분자만이 ＸＸＸ으로 결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
> …
>
> 제2투쟁기는 도래하였다. 우리는 비록 소수이다마는 최초의 결의와 선언을 가일층 강고하게 하는 동시에 힘차게 투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50]

1기 문학에서 2기 문학으로의 전환, 즉 카프의 방향전환은 신경향파 문학에서 결여된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 계급문학의 당위성을 천

---

49) 박영희, 「신경향파 문학과 무산파의 문학」, 『조선지광』 제64호, 1927.2.; 임규찬·한기형 편, 『제1차 방향전환론과 대중화론-카프비평자료총서 Ⅲ』, 태학사, 1989, 80쪽.

50) 문원태, 「제2투쟁기는 도래하였다.」, 『조선지광』 제64호, 1927.2.; 임규찬·한기형 편, 『제1차 방향전환론과 대중화론-카프비평자료총서 Ⅲ』, 태학사, 1989, 85쪽.

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산대중은 계급의식이 박약한 존재로 설정된다. 2기 문학은 계급의식을 갖춘 문인들이 무산계급 문학의 창작을 통해 무산대중에게 계급의식을 지도 · 교육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향전환론은 계급의식을 갖춘 소수의 사람만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에 따라 민중은 지식인들이 설정한 사회주의의 전망에 부응하거나 미달하는 존재로만 호명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자면 방향전환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새로운 규범성을 창출하고, 이러한 규범성을 통해 정당화된 계몽과 지도의 논법은 문인들의 전위성과 지식인이라는 특권적 위치를 담보한다.

방향전환론은 문학의 의미도 변형한다. 초기 신경향파 비평은 문예를 통해 민중이 본능적 · 창조적 힘을 발현하고 생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개념화하였다. 가령 이성태에 따르면 무산계급 예술(신경향파 문학)은 작가가 "농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생활안에 잠재 혹은 발휘되는 역사적의 생의 본능적의 창조의 위대한 힘을 발현하여 그 힘을 고조하고 찬미"[51]하기 위해 출현하였다. 하여 종국에는 작가가 민중에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초기 신경향파 비평은 민중의 창조성과 힘을 전면에 내세워 민중 본위의 문학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으나, 방향전환에서 문학은 무산대중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과 선전의 도구로 변모한다.

카프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제출한 2기 문학은 그들 자신이 제기했던 민중의 창조성과 생명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행위주체성의 불가능성 등을 역설한다. 이러한 전환은 1910년대와 같은 계몽주의의 논법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타파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는 카프 문인들의 주장과, 민중의 교화와 민족 계몽 · 개조론의 도구로써 문학을 상상한 민족주의적 문인들의 주장은 동근원적 관계이다. 문학을 민족/계급을 계몽하고 개조하기 위한 수단 즉 정치적 계몽주의의 도구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 시기의 문학은 그 자체의 고유성보다 문인들의 정치적 이념과 문학관을 규정하는 담론으로 개념화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나-볼 논쟁은 중요하다. 아나-볼 논쟁은 프로문학 운동

51) 이성태, 「가두의 예술」, 『동아일보』, 1924년 12월 1일, 4면.

을 둘러싼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 간의 첨예한 헤게모니 투쟁, 예술의 자율성 즉 예술지상주의로 환원되기 어렵다. 김영민은 카프의 아나키스트들이 프로문학 운동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아나-볼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해석한다. 이는 김화산이 「계급예술론의 신전개」에서 아나키즘 문예도 볼셰비즘 문예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산계급예술론을 수립할 수 있다는 대목 때문이다.[52] 그러나 아나키스트 문인들은 카프에서 축출되자 곧바로 관서흑우회에 참여하여 신간회의 좌우합작 노선을 비판한 점, 1928년에 자유동맹예술을 조직하고 곧바로 잡지 『문예광』을 만들어 카프에 반격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나-볼 논쟁에 대한 김영민의 해석은 국소적인 측면에 치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나-볼 논쟁에 화두를 던진 김화산의 논의는 오히려 카프가 제출한 2기 문학에 내재한 독단주의, 계몽주의, 계급성의 개조 등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김화산은 「계급예술론의 신전개」에서 예술이 정치투쟁의 선전도구임을 주장한 박영희의 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우선 '프로문예=맑스주의'로 사고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무산문예 운동과 무산계급 해방운동의 유일한 지도 원리로 보는 박영희의 관점을 비판한다. 김화산은 이러한 관점에 무산문예의 분화와 다양한 이론적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의 독단성과 권위주의가 기입돼 있다고 본다. 아울러 "종교적 신자와 동일한 심리가 현금 맑스주의자의 일부에 침윤"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맑스주의와 병존하는 모든 해방운동사상의 존재를 시인"하라고 요구하였다.[53] 김화산의 논의는 사상의 분화 가능성 · 다종성 · 차별화 전략을 통해 운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감각과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다음 비판이다.

김화산은 예술의 창작이 선전도구 이상의 고유한 본질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술은 정치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을 내포한다. 선전의 목적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은 "선전 포스타며 노방연설이며 인민위원회 정견 발표문"에 불과하다. 그는 예술의 선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52)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93쪽.
53) 김화산, 「계급예술론의 신전개」, 『조선문단』 제20호, 1927.3.; 임규찬·한기형 편, 『제1차 방향전환론과 대중화론-카프비평자료총서 Ⅲ』, 태학사, 1989, 103쪽.

선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즉 이미 제작된 예술을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선전용의 예술 창작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선전용으로 창작된 예술은 외부에서 강제하는 정치적 목적을 주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민중의 미적 자율성과 창조성을 소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카프 내 아나키스트들이 선전예술로서의 2기 문학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정치운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의 본질과 고유성은 무엇인가? 이는 비슷한 시기에 카프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아나키즘 예술관을 피력한 이향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대중의 강렬한 생활본능에서 기인한 생활ＸＸＸ행동의 감정과 사상을 인간의 본질적 요구인 원시적인 연대성적 동일감에 통일 순화하야 그들의 생활감정과 ＸＸ을 고무하는 것이 ＸＸＸＸ예술의 임무이며 사명일 것이다.[54]

> 오인(吾人)의 예술은 자기보존본능의 의거한 창조적 미감과 자기계급 또는 자기사회(민족적 생활집단)를 위하야 자기헌신의 인도적인 윤리적 미감 등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하겟다. … 로만 로란은 예술이 민중의 친우가 되는 길을 발견치 못하면 민중도 예술도 함께 사멸치 안흘 수 업다.[55]

이향은 생활 본능(자연성)을 기초로 한 민중의 욕구와 창조적 미감, 윤리적 미감을 발현시키는 것을 예술의 본질로 본다. 즉 예술은 민중의 자기표현의 수단인 것이다. 아울러 이향은 '예술은 민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을 인용함으로써, 민중과 예술이 동근원적인 발생 관계에 있다는 20년대 초중반의 민중예술론을 환기한다. 이향이 피력하는 예술론은 초기 카프 문인들이 자아의 확충과 완성, 생의 본연으로 규정한 민중 본위의 문학 및 신경향파 문학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카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예술의 독자성을, 예술지상주의나 "모순을 사랑하고 존재를 부정한다는 따따이스트의 명론"[56]으로 치부한다. 이러한 카프 문인들의 독법에는 감정 과잉과 왜곡이 투사돼 있다. 문예에 대한 김화산과 이향의 입장은 카프 결성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들

54) 이향, 「예술의 일익적(一翼的) 임무를 위하야」(二), 『조선일보』, 1928년 2월 11일, 3면.
55) 이향, 「예술의 일익적(一翼的) 임무를 위하야」(七), 『조선일보』, 1928년 2월 21일, 3면.
56) 윤기정, 「계급예술의 신전개를 읽고」(6), 『조선일보』, 1927년 3월 30일, 3면.

도 공유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카프는 아나-볼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 중에 문예운동의 방향전환과 정치운동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전면하는데, 아나-볼 논쟁과 문예운동의 방향전환이 상호발생적임을 알 수 있다.

> 이때까지 조선에 있어서 문예운동의 내용은 그 이름하는 바 자연생장적 (이름하여 신경향파) 문학의 내용과 같이 계급인으로서의 계급의식이 자연생장기인 그만큼 작품에도 그러하였다. … 소위 신경향파 문학이나 경제투쟁의 문학은 자연생장적이라고 하는 이름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하루하루 임금을 다투는 노동자나 차별과 ＸＸ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개인적 ＸＸ만으로는 무산계급의 계급적 의식을 얻기 어렵다. 이에 있어서는 목적의식적으로 나가야 한다.[57]

논쟁 와중에 발표된 윗글은 신경향파 문학의 한계를 설정하고 무산계급 문학의 필연성을 주창한다는 점에서 「신경향파 문학과 무산파의 문학」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신경향파 문학의 특징을 자연생장(자연발생)으로 규정하고 이를 목적의식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자연생장은 본능에서 비롯된 민중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투쟁을 지시하는 것이다. 신경향파 문학에서 재현하는 민중의 자연생장적 투쟁은 아나키즘이 강조하는 민중의 자연성과 직접행동에 다름이 아니다.[58] 문제는 자연생장이 혁명의 단계를 설정한 방향전환의 문법에서는 목적의식에 미달되는 것, 지적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투쟁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전시 공산주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치적 · 경제적 헤게모니의 구축을 문화발전의 선과제로 내세운 레닌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레닌은 "사회민주주의 의식이 노동자들에게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외부에서 들여올 있"다며 노동자 의식과 노동자 문화의 자생성을 인정하지 않았다.[59]

임화는 레닌주의의 어법으로 자연생장성에 내재된 반항의식과 목적의식에

---

57) 박영희, 「문예운동의 방향전환」, 『조선지광』 제66호, 1927.4. 임규찬·한기형 편, 『제1차 방향전환론과 대중화론-카프비평자료총서 Ⅲ』, 태학사, 1989, 129쪽.

58) 직접행동은 이데올로기의 선전과 효과보다 개인의 즉각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크로프트킨은 '실행에 의한 선전(propaganda by the deed)'라는 구호로 민중의 직접행동을 촉구하였다. 직접행동은 테러와 동일시될 수 없지만 반혁명세력과의 물리적 충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테러로 인식되곤 하였다. (하승우,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113쪽.) 신경향파 소설도 살인 · 방화 · 파괴 등 개인의 행동을 재현함으로써 독자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이는 당대에 유행한 신채호의 폭력투쟁론과 아나키즘의 직접행동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59) 최호정 역(블라디미르 레닌 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출판사, 2014, 39쪽.

내재된 계급의식을 구분한다. “자연발생적 반항의식의 문예”는 “무산계급 예술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잡성”을 가졌기에 단일한 목적으로 결집된 계급의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0] 이러한 임화의 논리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반항의식과 계급의식은 신경향파 문학과 무산계급 문학뿐만 아니라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은 문학적 · 이론적 차원에서 무산계급문학으로부터 대상화된다. 또한 임화는 문학과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극복과 분화가 필연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극복의 대상은 신경향파 문학이고 분화의 대상은 아나키즘인 것이다. 임화의 극복과 분화의 논리는 아나키즘과 신경향파가 반항의식과 자연생장성을 동시에 공유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카프의 마르크스주의는 자연성과 인간 본능을 지양하고 정치적 계몽성으로 전환하려고 한 반면, 아나키스트들은 무산문예의 중요한 본질로 자연성과 인간 본능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였다.

> ① 예술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제작될 것이 아니다. 예술의 영감은 외부에서 강제하는 목적관에서 오지 않는다.
>
> 그러나 예술은 그 내적 필요성에 의하여 자기자신 어떠한 목적관을 형성한다.
>
> 즉, 투쟁기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투쟁관계와의 내적 상호흡수작용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간에 결성된 목적의식이 극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술 내부에 삼투(滲透)된다. 이야말로 ‘아나키스트’의 고조코자하는 자연생장성을 통한 목적의식이다. 문예와 사회투쟁기에 대한 예술의 임무는 오직 이에 의하여서만 정확히 해결된다.
>
> …
>
> 투쟁기의 예술은 정통 무산계급적 인식의 표현이다. 무산계급내부에 발효하며 삼투하며 결성된 투쟁의사의 자유로운 — 즉, 하등의 강제와 명령에 의치 않은 — 자기의 의욕의 표현이 아니면 무산계급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61]

> ② 예술은 그 시대민중의 생명을 표현하는 형태이엇슴으로 과거조선민중의 생명은 그시대를 배경으로하고 나타난 예술의 속에서 얻어 내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장기의 예술은 생장기의 실체운동을 선행도 하고 그와 병행도 하야

60) 임화, 「분화와 전개」, 『조선일보』, 1927년 5월 16일, 3면.

61) 김화산, 「뇌동성(雷動性)의 문예론의 극복」, 『현대평론』 제5호, 1927.6.; 임규찬·한기형 편, 『제1차 방향전환론과 대중화론-카프비평자료총서 Ⅲ』, 태학사, 1989, 179쪽.

발생케 되는 것이다.[62]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서 민중과 예술, 창조적 본능은 상이한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치환될 수 있다. 예술은 무산계급의 인식의 표현이자 무산계급 내부에 삼투하여 결성된 투쟁의사이며 민중적 삶의 생명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성을 표현하는 양식으로서의 예술은 외부적 이념의 주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본능이 자연스럽게 삼투되어야만 힘을 얻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이 강조한 예술의 본질이란 외부적 이념에 따른 명령과 강제가 아니라 민중의 창조적 본능과 자율성으로 구축된 '자기의 의욕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의 문예관은 비슷하다. 양자가 투쟁의 동력으로 전망한 것은 민중의 생명력과 본능이기 때문이다.

가령 신경향파 문학의 대표 작가인 최서해는 방향전환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무산문예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무산문예는 "생에 대한 욕망", "반항 등의 심리"를 통해 민중에 "빛나는 생과 새로운 세계와 줄기찬 힘"을 보여줘야 한다.[63] 최서해는 여전히 생의 확충과 반역의 언어라는 아나키즘적 생명주의와 신경향파 문학의 논리를 고수하였다. 그는 대중에게 읽히는 문예가 되려면 대중의 생활, 본능을 제재로 삼아야 하고 과학적인 무산문예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최서해는 고소설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무산문예를 과학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고소설이 비과학적인 이유는 미신과 같은 비합리성 때문이라기보다 생활의 변혁이 숙명이나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민중의 위대한 힘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 생경한 이론은 그들이 즐기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모른다. … 그들은 중산 계급이나 지식 계급과 같이 알고도 주저리거나 어디가 어떻게 되나 하여서 이쪽 저쪽 추파를 보내는 얄미운 짓은 하지 않는다. 한번 믿으면 무조건 행하는 것이다. 그네들이 그네들의 안주지지(安住之地)를 찾음에 있어서 현재 그네들의 행동이 글렀다는 것을 아는 날이면 그들은 그것을 버릴 뿐 아니라, 그네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던 그 무엇까지라도 부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64]

---

62) 이향, 위의 글(1928), 3면.
63) 최서해, 「노농대중과 문예운동」, 곽근 편, 『최서해 전집』下, 문학과지성사, 1987, 358쪽.

카프의 방향전환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이 글은 지식계급/중산계급과 민중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주의 이론은 민중에게 생경하다. 민중은 생경한 이론을 모르지만 자신의 행동과 사회의 세태가 그릇되었음을 알면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과 행동을 취한다. 최서해는 민중의 각성이 외부 이론을 통한 교화 · 개조가 아니라 민중의 자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쟁도 민중의 새로운 행동에 의해 전개될 것임을 전망한다. 신경향파 문학이나 아나키즘 모두 자각에 의한 민중의 반항의식(반역정신)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근간을 같이 한다. 그러나 반항의식을 '인류의 원시적 생명의 강압적 명령' 즉 인간의 본능으로 정의한 아나키즘과 이러한 아나키즘의 관점을 '원시적 자유연합적 방법' 즉 비합리성의 표지로 읽은 마르크스주의 간의 낙차는,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가 한국의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카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르주아적이라며 비판한 자연생장, 자유, 인간 본성, 자유연합 등은 정작 마르크스가 선취하려고 했던 것임을 망각하였다. 마르크스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하나의 연합(eine Assoziation)"이자 "각 개인이 완전하며 자유로운 발전을 근본원리로 하는 보다 고차적 사회 형태"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를 제시하였다.[65] 마르크스도 아나키즘이 강조하는 자유연합의 원리와 자유로운 개인(자아)의 발전과 완성을 사회운동의 최종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아나키스트들의 사상을 자신의 언어로 변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시대의 아나키스트인 프루동 · 바쿠닌 등과의 지속적인 논쟁 · 사상적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임을 자처한 카프의 문인들은 아나키스트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프로문학운동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 마르크스가 선취한 자유 · 개인 · 본능 · 연합의 원리를 폐기하고,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완성을 동인으로 삼은 신경향파 문학을 지양하였다.

카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련의 논쟁과 문단정책을 통해 이뤄낸 문학사적 승리란 무엇인가? 카프는 자신이 주창한 문학관의 진정성과 프로문학운동의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나 정작 자신의 존재론적 근간인 민중의

64) 최서해, 위의 글, 359쪽.
65) 김수행 역(칼 마르크스 저), 『자본론』1, 비봉출판사, 1991, 421쪽, 749쪽.

언어를 계몽/개조의 언어로 대체하였다. 방향전환 이후 제기된 문학대중화론은 초기 신경향파 비평에서 강조된 민중 본위의 문학이 계몽/개조의 언어로 대체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다. 김기진은 「사회의식과정에 순응한 예술」에서 '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이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문학대중화에 대한 입론을 제출하였다. 김기진은 일련의 글에서 문학대중화론을 전개하면서 대중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 … 그러나 대중의 의식의 앙양(昂揚), 결정(結晶)은 일조일석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들건대 그들은 첫재 무지하다. 둘재 둔감하다. 셋재 장구한 세월의 간난신고의 경험은 그들로 하야금 장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마비케 하얏다. 요약하야 말하면 그들은 의지의 상실자다. 넷재 그들은 장구한 세월을 두고 지배ＸＸ의 계획적 수단으로 말미암아 저급한 향락과 노예적 봉사의 정신의 주입을 바다서 근치(根治)하기 곤란한 중독자가 되어잇다. 그럼으로 이와 가티 무지하고 둔감한 우에 의지를 상실한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의식을 진정한 무산계급의 의식에까지 끄을어올리고 투쟁의 정신으로 구더지게 하기 위하야서는 그들에게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서의 직접적 교양과 쉬일새 업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66]

이처럼 김기진의 문학대중화론은 계급의식을 갖춘 자와 계급의식을 갖추지 못한 자라는 지적 능력의 위계를 전제로 그렇지 못한 대중을 우민으로 정체화한다. 방향전환 이후 카프의 언어에는 "의식이 박약한 대중"[67]의 요구보다 지도자적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정치적 계몽의 욕망만 남았던 것이다.

이는 민중을 우민, 무식계급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교화를 위한 중추계급 즉 식자/지도자의 중요성을 설파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내재된 엘리티즘, 계몽주의 등이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민족개조론이 지적 능력의 위계에 따라 민중을 식자와 비식자로 분할하고 식자의 위치를 정당화했다면, 카프는 계급의식을 문학관의 진정성과 정치적 정당성으로 내세워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

66) 김기진, 「대중소설론」(4), 『동아일보』, 1929년 4월 17일, 4면.

67) 윤기정, 「문학아닌 문학」, 『조선지광』 제75호, 조선지광사, 1928.1, 5쪽. 윤기정은 '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이 아니라 대중에게 필요한 문학을 창작해야 한다며 김기진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문학 작품의 필요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인 민중이 아니라 작가이며, 작가의 요구가 민중의 요구에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대중화에 대한 카프 문인들의 입장들은 상반될 지라도 민중에 신뢰와 인식은 공통된다.

는 지식인과 동조하지 않는 지식으로 분할하여 자신의 특권적인 위치를 합리화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카프에서 아나키스트들을 축출하고 신경향파 문학을 지양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민중을 이중적으로 규정하였다. 앞서 방향전환론과 문학대중화론의 내적 논리를 살펴봤듯이, 민중은 정치운동의 영역에서 정치적 역량의 잠재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는 반면, 문예운동의 영역에서는 계급의식이 박약하여 소수 문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할 교화의 대상으로 견인된다. 여기서 교화란 신경향파 소설에서 재현된 민중의 반역정신을 비합리성과 과잉으로 표지화하고, 이를 계급의식이라는 이성적 · 합리적 언어로 탈바꿈하려는 지식인들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나키즘의 축출과 신경향파 문학의 지양은 문학에서 민중의 반역정신이 지식인의 이론과 전위성, 계몽의 언어를 통해서만 가시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이 글은 민중 담론의 사상적 지반인 아나키즘을 중심으로 신경향파 문학의 탄생과 지양, 지양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 사상 간의 상관성을 논구하였다. 1920년대는 사상적 전환과 더불어 문학장(文學場)의 변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사상적 전환은 지식인 위주의 기존 계몽주의적 담론이 민중담론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장(文學場)은 사상적 전환에 발맞추어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재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민중담론으로의 전환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급부상한 개조론과 아나키즘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 아나키즘은 개조 사상으로 식민지 조선에 수용되면서 1920년대 문화운동의 광범위한 사상적 지반으로 작용하였다. 아나키즘은 민중의 생명력과 행위주체성을 중시하고 자아의 확충과 완성을 사회혁명의 선결 과제로 천명하였다. 이처럼 개조사상으로 수용된 아나키즘은 1920년대 조선의 사상적 · 문학적 지형도를 민중담론으로 전환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은 조선의 담론적 전환과, 일본의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

에를 통해 굴절 · 접속된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의 영향 하에서 탄생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을 정립한 초기 신경향파 비평은 『민중예술론』에 내재된 자유주의적 경향을 부정하면서도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관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전개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대 문인들이 오스기 사카에의 아나키즘적 생명주의를 그대로 원용하여 로망 롤랑의 『민중예술론』을 해석하고 민중 본위의 예술을 주창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중의 생명, 자아의 확충과 완성, 영성(靈性), 생의 본연한 요구로서의 문학 등으로 신경향파 문학을 구축한 초기 신경향파 비평도 공유하던 현상이다.

아나키즘과의 영향관계는 신경향파 비평에 국한되지 않고 신경향파 문학의 작가로 지목된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신경향파 소설의 대표작가인 조명희, 이기영, 최서해 등의 작품은 생명의 침체와 확충을 사회의 근본 문제로 삼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반항(반역) 모티프를 공유한다. 즉 신경향파 문학은 비참한 현실을 고뇌하는 자아를 절대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체되는 자아의 생명을 문제시한다. 이 글은 신경향파 문학이 신경향파 비평의 정치적 기획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민중예술론과 오스기 사카에의 생명주의를 창작의 기저로 삼는다는 점에서 아나키즘과 발생론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글은 방향전환과 아나-볼 논쟁을 통해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을 논구하였다. 카프 결성 이후 1년 여 만에 벌어진 방향전환은 신경향파를 독립적인 문학이 아니라 계급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며, 신경향파에서 재현한 살인, 방화, 폭행 등은 사회적 전망이 결여된 민중의 속성으로 간주한다. 신경향파의 자연생장적인 특징은 목적의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단정책의 변환에서 민중은 계급의식이 박약한 존재이자 지식인의 지도 ·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된다.

이에 아나키스트 문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방향전환을 비판한다. 아나키스트들에 의하면, 예술은 결코 정치운동과 동일화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 예술의 본질은 민중의 욕구, 창조적 미감, 윤리적 미감의 발현 즉 민중의 자기표현의 수단인 것이다. 민중의 자기표현과 자연성(자연생장성)을 중시하는 아나키즘은 자아의 확충과 완성, 생의 본연을 모티프로 삼는 초기 신경향파 문학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이 글은 아나키즘 문예에 대한 카프 문인

들의 반론에서 방증하듯이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은 반항의식과 자연생장성을 창작 경향의 기저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민중의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반항의식을 고취하는 아나키즘과 신경향파 문학이 축출 · 지양되면서 문학장에는 민중을 우민으로 정체화하고 민중에 대한 지식인의 지도자적 위치를 고수하겠다는 정치적 계몽의 문법만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계몽주의는 민중의 생명력과 반역정신을 비합리적인 것/과잉된 것으로 표지화하고 계급의식이라는 지식인의 담론으로 환수한다.

'예술의 주인은 민중'을 존재론적 근간으로 삼는 신경향파 문학과 아나키즘은 민중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의 문학의 계몽주의를 반성하고 나온 시대정신이자 시대정신의 표현이다. 민중은 담론으로 환수되지 않는 자신만의 언어를 갖고 있기에 항상 지식인이 상정한 규범성에 이탈한 열등한 존재로 위치되었다. 이 시대성의 표현들은 민중의 존재와 언어에 대해 변형을 요구하지 않고 민중의 존재성 자체를 역능으로 긍정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였다. 신경향파 문학은 단선적인 프로문학의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라 현시되는 '지금'을 하나의 정치적 윤리성으로 길어낸 당대 사회의 시대정신이자 표현이다.

논 문 투 고 일 2019년 1월 29일
논 문 심 사 일 2019년 2월 11일
논문심사완료일 2019년 3월 7일

참고문헌

『개벽』

『동아일보』

『신생활』

『조선일보』

『조선지광』

곽근 편(최서해 저), 『최서해 전집』上, 문학과지성사, 1987.

곽근 편(최서해 저), 『최서해 전집』下, 문학과지성사, 1987.

임규찬 · 한기형 편,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카프비평자료총서 Ⅰ』, 태학사, 1989.

임규찬 · 한기형 편, 『프로문학의 성립과 신경향파-카프비평자료총서 Ⅱ』, 태학사, 1989.

임규찬 · 한기형 편, 『제1차 방향전환과 대중화 논쟁-카프비평자료총서 Ⅲ』, 태학사, 1989.

권철호, 「『만세전』과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정치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52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김종현, 「이기영 초기소설의 아나키즘적 경향 연구」, 『문화와 융합』 제26집, 문학과언어연구회, 2004.

김흥식, 「이기영 문학과 아나키즘 체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5.

박상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신경향파』, 소명, 2000.

박양신, 「다이쇼 시기 일본, 식민지 조선의 민중예술론: 로맹 롤랑의 “제국” 횡단」, 『翰林日本學』 제22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변화영, 「식민지시기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이익상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6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소영현, 「아나키즘과 1920년대 문화지리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손유경, 「최근 프로 문학 연구의 전개 양상과 그 전망」, 『상허학보』 제19집, 상허학회, 2007.

손유경, 「사회주의 문예 운동과 인간 본성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유병관, 「정열과 반역의 시, 이상화: 아나키즘의 자장(磁場)」, 『泮矯語文硏究』 제36집,

반교어문학회, 2014.
유병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아나키즘이 갖는 의미와 영향: 일본의 문예사상과 관련하여」, 『국제어문』 제71집, 국제어문학회, 2016.
이성혁, 「1920년대 한국 근대시의 전위성 연구: 아나키즘 다다와 임화의 초창기 시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형진, 「최서해 문학에 드러난 아나키즘적 경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15.
이형진, 「1920년대 지적 능력 담론의 지배화 과정과 그 단절에 관한 시론: 민중, 우민, 독학자라는 주체성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43집, 동남어문학회, 2017.
이혜정, 「이익상 문학과 아나키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45집, 한민족문화학회, 2014.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이화진, 「조명희의 「낙동강」과 그 사상적 지반: 낭만성의 기원」,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2013.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제21집, 우리말글학회, 2001.
최병구, 「사회주의 조직운동과 문학, 소설과 비평의 사이: 1927년 카프 1차 방향전환기 재독(再讀)」,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하승우,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 그린비, 2006.
한점돌, 「한국아나키즘문학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3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허수, 「1920~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제77집, 한국역사연구회, 2010.
大杉栄, 「新しき世界の為めの新しき芸術」, 『早稲田文学』 1917(大正6)年10月号.
大杉栄, 「生の拡充」, 『近代思想』, 1913(大正2)年.
"환경과 反차별" 편집동인(야기 타다시八木 正 저), 「전문과학주의라는 환상의 비판: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구축을 위하여」, 『오늘의 아나키즘』 제1호, 환경과 反차별, 2003.
김수행 역(칼 마르크스 저), 『자본론』1, 비봉출판사, 1991.
김홍옥 역(다니엘 게랭 저), 『아나키즘』, 여름언덕, 2015.
최호정 역(블라디미르 레닌 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출판사, 2014.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ship between Shin-Gyunghyang-pa Literature and Anarchism of the 1920s.

Lee, Hyeong-Jin

This article discusses the birth, sublation, sublation effect of the Shin-Gyunghyang-pa literature through the ideological basis of anarchism. First, I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Minjung discourse that spread in the 1920s into the literature field and form the theory of the people's art. The theory of the people's art was introduced into the colonial Korea through Osugi Sakae's anarchism and life-ism. The theory of the people's art, anarchism, and life-ism served as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birth of the Shin-Gyunghyang-pa literature. The expansion and completion of the ego reproduced in the Shin-Gyunghyang-pa literature, vitality, and the spirit of rebellion coincide with the theory of the people's art of Osugi Sakae. Also, anarchism and the Shin-Gyunghyang-pa literature considered natural growth and development, rebellious consciousness and the self-expression of the people as power of literature. Eventually, they are ousted by the KAPF. As the people-centered discourses disappeared, only the language of the political enlightenment was left in the literary field to mark the people's language and rebellious consciousness as irrational and to establish the leadership position of the people. The Shin-Gyunghyang-pa literature and anarchism regarded 'the master of art as the people' as the ontological basis. The Shin-Gyunghyang-pa literature and anarchism didn't dem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xistence and language of the people. They regarded the existence of the people as a potentia.

Key Word : Shin-Gyunghyang-pa literature, Anarchism, Osugi Sakae, The

theory of the people's art, Ego, Life-ism, Rebellious consciousness, Minjung, Reorganization theory